

# 중국과 홍콩 컨터미널 보안할증료 부과

## 선전항은 3월부터 20피트 1개당 50위엔

유럽항만을 중심으로 보안할증료 부과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다소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던 중국 항만터미널이 최근 보안할증료를 부과하는 등 보안할증료 부과가 아시아 항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하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선전의 옌티엔, 서커우, 츠완 3개 컨테이너 터미널이 입항 선박들에 대해 3월1일부터 보안할증료를 부과하는데 이어 홍콩항의 Modern Terminals(MTL)도 이미 이미 하주들에게 보안할증료 부과방침을 통지한 상태이다.

선전항은 3월부터 컨테이너 TEU 당 50위엔(약 6.3 달러)의 보안할증료를 부과키로 했는데, 공컨테이너와 환적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전항은 연간 6억8,000만위엔에 달하는 보안료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비용은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항만관계자는 전했다.

선전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안료 징수에 대해 화주와 선사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선사들이 반대외사를 표명했으며, 일부 선사는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홍콩항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Modern Terminals(MTL)를 비롯한 다른 터미널에서도 보안할증료 부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MTL사 관계자는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금액 상계와 향후 새로운 국제적인 보안요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안할증료 부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미 터미널운영사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선사들의 보안료 부과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항의 또 다른 터미널 운영사인 Hongkong International Terminals(HIT)사는 이 문제가 사업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으나, 터미널운영사들이 오는 5월부터 공컨테이너를 제외한 컨테이너에 대해 TEU 당 50홍콩달러(6.4 달러)의 보안할증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